

지역 소식통

김제시, 상가지역 등 중심

쓰레기 없는 내내내 거리 조성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상가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없는 내내내 거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내내내 거리(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는 읍면동별 1개소씩 총 19개 구간으로 총 11.7km를 지정했다.

내내내 거리에 참여한 상인, 시민 등은 1,150명 정도이며, 자율적으로 내 집, 내 가게 앞의 담배꽂이, 낙엽 등을 청소하고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 청소지원과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참여 시민들에게 청소용품 제공했다. 또한 내내내 거리 조성에 참여한 시민들의 상가 및 주택 문 앞에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자율적인 청소 분위기를 /김제=곽노태 기자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김제시, 4월 1일부터 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오는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o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9월 대상자를 확정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신청해 11~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영농현장에 계절근로자 투입

대사관·지자체 소통으로 필리핀 예외적 허용... 10명 과건

계절근로자 과건을 유예한 필리핀이 예외적으로 완주군에 10명을 과건했다.

19일 완주군은 최근 필리핀 계절근로자 10명이 입국해 바쁜 영농철 일손을 돕는다고 밝혔다.

향후 48명도 추가로 필리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를 밟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당초 필리핀은 타 지자체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해왔다.

이에 완주군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실(POLO), 필리핀 지자체와 수차례 서한을 발송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며 대응해 왔다. 이 결과 필리핀은 1, 2, 3차 권고문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국이 승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5개월간 연장신청 시 최대 8개월간 고용 농가와 함께 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현재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총 96명으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64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32명(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다. 완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빠르게 적응해 일할 수 있도록 농가주 산재보험료 지원, 근로자 마약검사비

지원, 긴급의료비 편성, 희년의료공제회 관내 협력병원도 4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완주군가족센터와 협력해 근로자 상담 관리, 한국어학당 연계, 명예(통역) 홍보대사 6명(필리핀 6, 베트남 2)을 위촉해 지원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이 다시 시작돼 기쁘다"며 "필리핀 정부의 송출유예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 날까지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열재복 기자



김제시가 1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제시, 시책연구모임 '첫 걸음'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 반영된 정책 개발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1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김제시장 인사, △시책연구모임 운영 방향 설명,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에 이어, 전북연구원 이강진 박사의 △김제시 주요 이슈 및 미래 비전 특강, △정책디자인 특강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시책연구모임은 공개 모집을 통해 청년·농업·복지·도시계획 등 각각각층에서 19명의 시민이 선발되었으며, 공무원들은 다양한 직급·직렬의 35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었던 시책연구모임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시

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정기적인 연구모임과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책을 발굴하게 된다. 9월에 개최되는 성과발표회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시책 6건이 선정되며, 선정된 우수 시책은 시장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책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여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찬준 김제시 부시장, 해양수산부 방문

국립해양생명과학관·새만금 신항 내 어항구 설정 등 사업 건의

이찬준 김제시 부시장이 해양수산 분야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내기 위해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

이 부시장은 지난 18일 해수부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인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과 새만금 신항

내 어항구 설정을 통한 국가어항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원활한 협조와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

이 부시장은 먼저 김제시 진봉면(구)심포항 부지에 국비 약 1,005억원을 들여 건립 예정인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까지 해수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새만금 사업 이후 지방어항이었던 심포항을 비롯한 기존어항이 전부 폐쇄된 시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건설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을 조기에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 설정을 통한 국가어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했다.

이 부시장은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로 명실상부 해양도시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에 발맞춰 추진되는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과 새만금 신항 내 어항구 설정은 김제시 해양문화 발전과 새만금 사업으로 위축된 김제시 해양수산 분야에 실효성을 높여줄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라며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김제시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들의 정부계획 반영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찬준 김제시 부시장이 해양수산 분야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내기 위해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

제35회 원평장터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

105년전 1919년 기미년 김제 지역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35회 원평장터기미독립만세운동 105주년 기념행사가 19일 원평장터 기념 광장에서 개최됐다.

원평장터기미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석준)와 (사)김제동학농민

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김왕배)이 공동 주관하고 김제시와 전북서부보훈지청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기념 행사는 관내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독립투사 유가족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 3.1 만세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주민재현극, 기미독립만

세운동 재현,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금산면 모악예술단의 재현극은 105년전 그 날의 뜨거운 함성을 되살리는 의미있는 무대였다. 또 독립군주먹밥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행사와 함께 독립운동자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한옥 건축 활성화 나섰다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최대 5000만원 지원

완주군이 한옥 건축 활성화에 나섰다.

19일 완주군은 한옥을 신축 및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바닥면적 60㎡ 이상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으로 형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옥건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공사비 50%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000만원(규모별 차등 지원),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9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며,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완주군청 건축허가과(290-2867)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된 서류는 군 담당부서 검토 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올해 사업부터는 지난 2023년 9월 배포된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해 설계비용 절감 및 설계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주택 신축 시 최대 2억5,000만원,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의 융자금(연리 2%)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건축허가과(290-9867)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열재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